

등대의 해양관광자원으로서 활용방안 연구

† 이한석 · 심미숙*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공간건축학부

A study on the use of lighthouse as marine tourism resources

† Han-Seok Lee · Mi-Sook Shim*

†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 Graduate school of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요 약 : 국민의 여가시간 증대로 친수시설에 대한 해양관광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주요 항만이나 지역의 어촌, 경승지 및 명소에 어울리는 조형미를 갖춘 등대시설을 관광자원화하여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등대가 들어선지 어언 100여년이 지나면서 훼손된 등대를 새롭게 신축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등대건축을 진단하고 그것들의 보존과 적극적인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 등대는 전통적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항로표지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향유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관광시설이자 공간으로 적극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등대 개발사례를 검토하여 등대의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등대, 친수공간, 해양문화, 해양관광, 해양관광자원

ABSTRACT : With increase of people's leisure time for marine facilities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demand for marine tourism. It is necessary for lighthouse to meet the demand for marine tourism. Now, the lighthouse is not only functioning as a traditional aids to navigation for vessel, but also it becomes the new facility and space for all civilians who might visit and experience the marine culture. This research suggests how to use the facilities of the lighthouse as marine tourism resources by reviewing the cases of domestic lighthouses.

KEY WORDS : Lighthouse, Water-friendly space, Marine culture, Marine tour, Marine tourism resource

1. 서론

국민의 여가시간 증대로 친수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주요 항만이나 지역의 어촌 일원의 등대 건축물의 미관, 경관요소 강화와 더불어 해양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등대는 고유기능인 항로표지역할로서의 기능적인 측면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는 해양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공공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런 고유 기능에 덧붙여 등대는 건축문화 유물로서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등대의 고유기능에 해양성 여가 및 관광기능을 부가하여 다목

적 관광상품화시켜 등대의 기존 개념을 확대하고 그 존재의 미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안이나 하천 주변의 친수공간 조성 등의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등대를 해양문화관광자원화하는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만건축물의 대표적인 상징인 등대를 해양문화관광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등대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알아보고, 등대가 단순히 항로표지 역할 외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저자 : hansk@hhu.ac.kr 051)410-4581

* 저자 : newly1@hanmail.net 010)5527-1721

2. 등대건축의 해양관광 상품적 특성

2.1 자연자원

등대의 입지 특성상 등대 주변의 자연자원인 바다, 바람, 파도 등과 더불어 해산물, 향만, 생태환경 모두가 등대와 같은 시설을 매개로 융합될 수 있는 중요한 해양자원이다. 등대는 그 형상 자체가 시각적으로 눈에 잘 보여야 하고, 과거에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훼손되지 않은 그대로 자연 속에 있다. 이처럼 등대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잘 보존하고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적 요소가 되고 있다.

2.2 문화자원

등대는 예부터 문학이나 영상의 소재로 자주 다루어졌고,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문학적 의미로 인해 대중들에게 매우 친숙하다. 따라서 등대는 바다와 대중을 친밀하게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또한 등대는 일반인들이 쉽게 해상교통안전이나 해양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2.3 관광자원

등대는 지역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해양성 테마파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3. 국내 등대의 해양관광자원으로서 이용 사례

3.1 부산 태종대 영도등대

영도등대는 해양관련 미술, 사진, 조각등을 전시하는 갤러리 '씨엔씨(See&See)'와 해양관련 도서를 열람 및 대여할 수 있는 해양도서실, 해양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이용실, 해양업체 영화관, 해양학습을 위한 세미나룸 등을 갖추고 있다. 등대를 내려오는 계단 측면에는 해양생물 학습자료를, 등탑 전망대를 올라가는 달팽이 계단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선박 변천사진과 향만 소개자료 등을 전시해 해양학습장소로 꾸몄다. 또 등대 꼭대기엔 바다전망대를 설치하고, 등대 주변엔 파식대, 태종바위, 공룡 발자국 등 자연 유적지와 자연사 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3.2 부산 기장군 서암항 등대

부산해양항만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화리 서암항에 젓병 모양을 한 등대를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해양항만청은 유아 프린팅 행사를 통해 150점의 손·발도장을 모아 2009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인 젓병등대의 외부에 부모의 염원을 함께 담아 새겨 넣을 예정이다. 연화리 젓병등대는 부산해양항만청과 부

산관광컨벤션뷰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대를 이용한 부산 도시이미지화 사업'의 하나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염원을 담아 젓병 모양의 특색있는 등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

3.3 부산 신항 가덕도 등대

부산 신항의 가덕도 등대는 여름방학을 맞은 부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등대해양학교'로 이용된다. 부산해양항만청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바다사랑 및 해양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2박3일씩 모두 5차례에 걸쳐 해양환경교육, 해양생물채집, 등대현장체험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3.4 울릉 서면 태하리 울릉등대

울릉등대의 항로표지시설 개축공사를 시작으로 등대 주변에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과 상징조형물, 전망대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해양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 계획이다. 울릉도 서쪽 향나무 군락지인 대풍감 끝자락에 위치한 울릉등대는 1958년 처음 점등한 높이 7.6m의 백색 원형 콘크리트 구조로 2003년 10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프리즘렌즈 회전식 대형 등명기를 교체해 50km까지 불빛을 전하며 울릉도 해역을 지나는 어선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등대로 가는 등산로와 주변 지역은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선정한 한국 10대 비경 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곳을 연결하는 모노레일이 설치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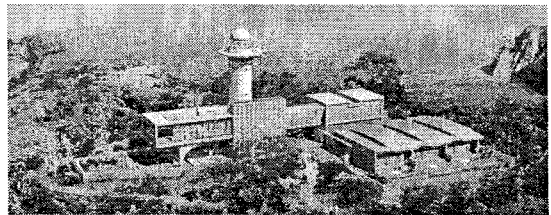


그림 1 울릉등대 조감도

3.5 강원 동해시 묵호등대

높이 21.9m의 백원형 철근콘크리트조 7층형 구조로 지어진 묵호등대는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서 등대 기능을 강화하고, 동해 바다와 두타산과 청옥산, 동해시를 조망할 수 있는 등대전망대를 새롭게 조성했다. 또 해양문화전시물과 파고라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해양문화공간도 조성했다. 해발고도 67m에 자리잡은 묵호등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프리즘렌즈 회전식 대형 등명기를 갖춰 멀리 48km(26해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등대로, 그동안 동해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3.6 진도 하조도 등대

하조도 등대는 2006년 3월부터 총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된 돌담정비, 사무동 신축을 비롯하여 기상관측실을 설치하여 해양기상정보를 실시간 항해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인근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홍보 영상관 등도 확충했다.

3. 7 인천 국내1호 등대섬 팔미도

2009년 인천 방문의 해를 맞아 그동안 군사통제구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었던 국내 최초 등대섬을 밝힌 팔미도가 106년 만에 처음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특히 팔미도 등대는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을 안전한 뱃길로 인도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천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팔미도 등대는 2003년에 2층 규모의 최첨단시설로서 새롭게 정비되어 등탑과 전망대를 갖추고 있으며, 등대 안에는 등대 홍보관과 전망대가 있다.

3. 8 전남 완도항 노래하는 등대

전남 완도군 완도항 북방파제 끝단에 있는 이 등대는 평상시에 해양안전의 기능을 수행하고, 등대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서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조형등대들은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징을 형상화했지만 '노래하는등대'는 사각형의 나선형으로 변화와 율동을 기본 컨셉으로 해서 항구의 기다림과 항구를 오가는 배들의 움직임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노래하는 등대에서는 등대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휴식할 수 있는 해양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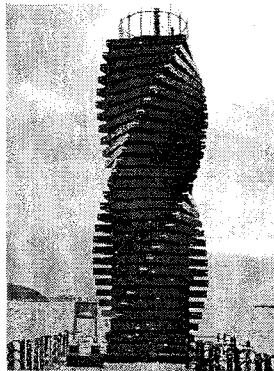


그림 2 완도항 등대

3. 9 통영 연필 등대

경남 통영시의 연필등대는 노후된 등대를 개량한 것으로 박경리 등 우리나라 문학의 거장들을 배출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등대친수공간으로 개발하여 등대시설을 항행보조시설로써의 고유기능 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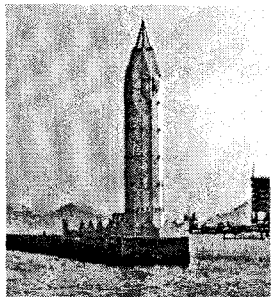


그림 3 통영 연필등대

4. 여건분석 종합

우리나라의 유·무인등대는 총 491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표1 지역별 유·무인등대현황 (2000)

관할청	유인등대	무인등대
인천	5	29
대산	3	16
군산	2	26
목포	10	100
제주	4	53
여수	4	62
마산	3	81
부산	3	25
울산	3	11
포항	7	44
동해	5	44
합계	49	491

자료 : 국토해양부(2004)

근래 들어 등대의 고유기능 외에도 등대가 휴식, 관광 등 시민들의 새로운 해양문화공간으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등 과거 단순한 선박안전의 항행보조시설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등대가 지역의 해양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주로 임해지역에 입지해 있는 등대의 관리주체가 중앙정부에 있어, 지역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자체와 해양항만청의 통합관리의 문제점, 홍보 및 주변 연계관광상품화전략 미흡, 미관 및 경관요소 미흡, 차별화 미흡 등의 문제점이 상존해 있다. 따라서 공공성, 역사성, 자원성이 풍부한 등대를 등대 고유기능 발휘와 더불어 지역의 대표적인 해양관광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5. 등대의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5. 1 접근성 용이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등대건축에 접근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담장이나 장애물을 과감히 제거하여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정보와 현지 정보, 안내판, 이정표와 인터넷을 통한 안내도 등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2 등대의 랜드마크화

등대를 이용한 도시 이미지화는 등대시설을 관광 자원화하고, 등대를 전략적 도시홍보 이미지로 고유 브랜드화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과 국제회의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해양도시와 어울리는 등대를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모양이 특이하거나 경관이 뛰어난 등대시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5. 3 주변의 관광지 또는 관광상품과 연계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인근지역의 관광권 개발이 필요하다. 주변 관광상품인 각종 시설이나 자연, 문화와 철저히 연계 되어 관광루트에 필수 대상으로 인식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 시설인 만큼 등대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등대관광시설내의 안내표시 및 서식 등의 통일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5. 4 관광자원으로서 경관요소 강화

등대는 어두운 곳을 밝혀준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므로 그러한 이미지를 충분히 살려 야간조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포트라이트 장소를 선정하여 수려한 해안경관을 마련함과 동시에 등대시설의 이미지 개선효과 및 관광객의 포토포인트 및 예술작품으로서 등대의 조형화를 통해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5. 5 다양한 관광연계 프로그램 개발

최근의 여가 및 관광수요 활동은 과거의 소극적 관광패턴에서 참여하고 체험하는 능동적인 관광패턴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감상하는 관광에서 참여, 체험형 관광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등대의 관광상품화가 요구되며, 특히 등대고유의 단순 교육적 기능에 부가하여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연계관광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 등대 체험 숙박'의 경우 해양관광과 더불어 등대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 거문도등대 구내에 한 가족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가족 체험형 숙박시설'을 마련, 일반인이 순서에 따라 이용토록하고 있다.

5. 6 차별화된 홍보전략

홈페이지에 등대 주변 관광지외 사진, 교통편 등 여행정보를 추가하고 자주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등대 전망대 내부에는 해양항만·등대·선박 등 전시패널을 설치하여 차별화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등대의 스토리텔링도 적극 개발하여 등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화나 역사적이야기 등을 통해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지방지, 일간지 및 라디오, TV, 포스터, 비디오 제작,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판촉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우리나라에 등대가 들어선지 약 100여년이 지나면서 훼손된 등대를 새롭게 신축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등대건축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등대의 보존과 보다 적극적인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국내 등대의 해양관광공간으로서의 기능 창출 사례를 살펴보고 등대의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등대의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상택시, 크루즈는 물론이고, 육상에서의 다양한 탈거리 등 해상, 육상 등 다양한 교통로와 접근수단을 고려해 할 것이다.

둘째, 어느 정도 높이가 소요되는 등대의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등대를 지역의 랜드마크화시켜 지역의 대표적인 해양문화관광 장소적 의미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등대 주변의 관광지 또는 다양한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등대의 연계관광네트워크화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등대가 지니고 있는 고유 건축물의 주야간 미관 및 경관요소를 보다 강화시켜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등대와 연계하는 다양한 관광볼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대 관련한 체계적인 홍보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등대의 고유기능에 차별성 높은 다양한 해양문화관광 기능을 부가시켜 반도국가인 우리나라가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등대의 새로운 가치증진에 국가의 소중한 해양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외국사례조사 및 전국 또는 단위 지역별 등 다양한 공간적, 내용적 연구범위를 확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등대가 우리나라 해양관광자원으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이한석·이중우·안응희(2007), 부산 해안지역 친수공간벨트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1권 제10호 (통권 제126호), pp.885-890
- [2] 안응희(2005), 유인등대를 활용한 친수공간의 시설, 프로그램, 제도에 관한 연구 - 영남권 유인등대를 중심으로-,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29권 제3호, pp.275-282
- [3]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2005), 해양관광문화공간으로서 등대활용방안 세미나 발표자료집
- [4] 최도석, 심미숙(2004), 부산의 해양관광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5] 해양수산부(2004), 해양유물 보존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연구 용역보고서
-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 자연사·미려환경학회(2006),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활성화 및 무인도서 관광연계 방안연구 보고서